시교육청, 초중고 온라인 개학 준비 '착착'

초등 학습꾸러미 제공…정보화 기기 구입 예산 지급
원격교육지원반 본격 가동…학사운영·콘텐츠 등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 준비에 여념이 없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식 지원 정책을 대거 시행한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물품 및 정보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즉시 제공하는 적극적 교육행정 서비스를 추진한다.

초등학생이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 중 활용 가능한 학습준비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한다. 교실수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각종 학습준비물을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품목까지 확대 지원한다. 공동물품 대신 학생 개인별 색연필·도화지·학습교재 등의 물품으로 구입·지급한다. '학습꾸러미' 구성은 상황에 맞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미 편성된 학생 1인당 3만원의 예산에서 초과분은 시교육청이 전액 추가 보전한다.

시교육청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정보화 기기 구입 예산을 학급당 20만원씩 지급한다. 학교가 정보화 기기를 구입하면 추후 시교육청이 구입 예산을 지급하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학습 진행에 따른 '손에 잡히는 원격수업' Q&A 자료집을 웹 파일로 제작해 학교·전기관에 배포했다. 영상으로도 제작해 교육청·전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자료집은 원격수업 방법·요령, 학교급별 학사운영, 교육청 지원사업 등 학생·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원격교육지원반'을 신설하고 지난 2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원격교육지원반은 학생과 교사가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정보화 기기 및 통신비 지원 등의 현장 밀착지원을 수행한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원격교육콜센터도 구축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한다. 원격교육콜센터는 원격수업을 위한 교원 연수와 화상회의 지원, 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같은 플랫폼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또 스마트 기기 사용 및 인터넷 문제 해결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격수업으로 겪는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역시 '원격교육지원단'을 운영해 초·중학교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등 학사운영을 지원한다.

현석룡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일 '원격수업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서강고를 찾아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동신대 김춘식 교수
발표·토론 가능 화상수업 '주목'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교 강의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전공 김춘식 교수가 발표와 토론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 화상수업을 진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6일 동신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비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 16일 이후 학생들과의 쌍방향 소통 학습이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Zoom)을 활용해 실시간 화상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양과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실제 강의 시간에 온라인 단체방에 동시 접속, 김 교수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체크가 곧바로 이뤄지고, 발표와 토론 수업까지 가능하다.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 알려지며, 지난 2일에는 전남도교육청의 초청을 받아 나주시 빛가람동 스페이스코웍 전남혁신점에서 전남 직업계고 원격수업 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화상수업(회의) 서비스(Zoom) 활용'을 주제로 원격수업 강의를 하기도 했다. 〈사진〉

실제 화상강의에서 발표와 토론하는 장면을 직접 시현하며 교사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 교수는 "대면수업이 이뤄질 때까지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활용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호남대, '튼튼먹거리탐험대' 5년연속 위탁운영

식품영양학과·식약청, 올바른 식습관 위생교육 추진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찾아가는 영양교육 튼튼먹거리탐험대' 위탁 운영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

호남대 식품영양학과는 지난 2016년 첫 위탁운영을 시작한 이래 광주와 전남·북, 기타 인접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게 됐다.

'튼튼먹거리탐험대'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방문 교육을 위해 특수 제작된 9.5톤 푸드 트럭으로, 요리실습과 최신미디어 교육, 냉·온방, 자가발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트랜스포머처럼 벽체를 펼치면 학교 교실 크기의 교육장으로 깜짝 변신시켜 활용할 수 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위한 '튼튼먹거리탐험대'는 오는 12월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지역 등 어린이 및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영양, 위생 교육 및 조리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5세 이상 어린이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들도 참여 가능하고,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관별로 신청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 책임을 맡은 한규상 교수(호남대 식품영양학과)는 "즐거운 교육, 올바른 식생활, 건강한 미래의 3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신청은 튼튼먹거리탐험대 홈페이지(www.foodwings.honam.ac.kr) 또는 이메일 (foodwingss@naver.com),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튼튼먹거리탐험대'(062-940-5532, 062-940-5428)로 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대, 개교 40주년 발전기금 홈페이지 개편

'온라인 기부 가능' 접근성 향상…기부자 명단·스토리 공개

광주대학교가 호심학원 창설 50주년과 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gwangju.ac.kr)를 전면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메인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해 접근성을 높였다.

발전기금 전용 홈페이지에는 기부 내용 조회, 기부 참여 현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부자 예우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명단과 스토리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발전기금에 대한 동문과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향상해, 온라인 기부도 손쉽게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광주대 홈페이지도 메인 디자인을 변경하고 메뉴 구성을 수정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검색 기능을 추가했으며, 모바일 환경의 급성장에 따라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최신 트랜드를 적용해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 정보와 이러닝강좌 바로 가기 등을 전면에 배치,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올해 호심학원 창설 50주년과 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은 광주대는 기념 앰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광주대의 새 엠블럼은, 개교 40주년의 '4'를 학교 건물로 형상화했으며, 새롭게 비상한다는 의미를 화살표로 표현했다.

또 슬로건 '인재양성 40년! 꿈을 모아 미래로!'는 40년 동안 꾸준하게 광주·전남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온 광주대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여대 '평생지도학생 밀착상담제도' 운영

광주여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평생지도학생 밀착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평생지도학생 밀착상담'은 각 학과 내 평생지도 교수들이 배정 받은 지도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1:1 전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충을 청취하고 각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광주여대는 코로나19로 대학의 학사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창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야 하는 신입생들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형성 기회 박탈로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가 예상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화 상담에 나섰다. /최권범 기자